

에너지 전환 포럼 청년 프런티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에세이 - 석민진

나는 꼬꼬마 시절부터 기후, 환경 문제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초등학생 때 포스터, 포어그리기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삼았고, 중학생 때는 자연관찰 탐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연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고등학생 때는 학교 근처 하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내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활동에 임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 에너지 전환포럼 청년 프런티어 2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2021년 새해 첫 달부터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 무척 영광이다. 그 7일간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에세이로 정리해 보았다. 필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해 열심히 써 보았으니 재미있게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1월 11일

★ 프런티어와의 두근두근 첫만남, 발대식

12월 초 지원서를 넣을 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망의 청년 프런티어 활동이 막을 올렸다! 총 34명의 청년 프런티어 단이 출범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발대식은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님, 한EU기후행동 사업팀 손봉희 책임전문관님, 다섯명의 훌륭한 멘토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무척 영광이었고 이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단원활동 서약을 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의지를 다질 수 있었고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프런티어 1기로 활동하셨던 기획단 오혜정 님은 비록 우리의 목표는 유의미한 솔루션 도출이지만,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꿀팁을 전수해 주셨다! 현재 팀원들과 문제정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

★ ice breaking !

첫날 어색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기획단 배은지님과 문희은님이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준비해 주셨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단원분들과 단기간에 친해지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거짓말을 섞은 조금은 요상한(?) 자기소개 활동으로 시작해 프런티어로서의 여정 그리기, 에너지 골든벨 활동까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어색하지 않고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1월 12일

★ 첫번째, 두번째 강연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대망의 첫 강의는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님이 맡아 주셨다.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재미있는 농담과 거침없는 팩트 폭력을 통해서 점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어 나갔다.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50년 탄소중립과 해결과제”. 김지석 전문위원님은 유럽의 Net zero 달성 방안부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진행 실태까지 가감없이 솔직한 정보를 알려주셨다. 2050년 넷제로도 사실은 엄청 늦은 목표이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속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하신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현 주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소중한 강연이었다.

이어 진행한 두번째 강의 내용은 바로 “한국의 탄소중립 비전, 과제와 수단” 이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선임연구원 님이 강연해 주셨다. 강사님은 시작해 평소 관심이 매우 많았던 RE100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창훈 선임연구원님의 강연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농촌에서 효율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에너지 회수 방법으로만 에너지를 절약하곤 했었는데 현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접근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1월 13일

★ 세번째, 네번째 강연

EU강의들에 대해서는 매우 기대가 컸다. 해외의 전문가분들로부터 유럽의 넷제로 달성 상황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청년 프런티어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다.

첫번째 EU강연은 WWF Europe에서 정책 실장을 맡고 계시는 Alex Mason님이 강연을 진행해 주셨다. 인상 깊었던 점은 가장 넷제로를 향해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유럽이 2050년 넷제로 목표가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가스업계에서 언급하는 수소는 가스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어지는 다음 강의는 독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이 주제였고 Wupertal Institute의 Timon Wehnert 님이 강연해 주셨다. 독일에서 강하게 입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입김 때문에 수송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매우 높다고 하셨다. 그리고 독일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 건축 부문의 빠른 에너지 전환을 한국도 배워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월 14일-

★ 다섯번째, 여섯번째 강연

이전 13일날 진행한 SWOT세션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처음 느꼈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졌다. 마침 같은 날 진행한 5번째 강의의 주제가 그린뉴딜과 전력산업의 새로운 방향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다. 강의는 이유수 에너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 진행해 주셨는데 강사님은 국가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전력부족 문제보다 과잉문제가 더 심각하고 과잉 공급으로 생기는 과 주파수로 인한 계통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셨다. 전통적 전력 거래 구조에서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열린 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하단걸 알게되었다.

기후위기의 도전과 과학기술 혁신의 내용을 담은 윤재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강사님의 여섯번째 강의에서는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가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태양광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고 현재 국가 혹은 민간 주도의 태양광 재활용 센터 구축이 준비중이기 때문에 태양광 폐기물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업은 에너지 전환을 속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월 15일

★ 일곱번째 강연

작년 뉴스를 통해 '그리드 위즈'라는 기업을 알게 된 이후로 꾸준히 관심이 있었는데 직접 박창민 그리드위즈 전무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다! 강사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효율 혁신에 대해 강연해 주셨는데 빅데이터와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스마트 그리드 전력 기술과 접목시켰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인상깊었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쉽다는 것이 의외였다. 또한 한국의 태양광 기술, ESS기술, 배터리 산업은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1월 18일

★ 여덟번째, 아홉번째 강연

8번째 강의의 주제인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은 사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했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지역의 에너지 전

환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에너지 전환이 더딘 근본적인 이유가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이 아닌 우리나라의 강한 중앙집권 체제와 지자체의 권한부족이라는 것이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권이 실현되기를 바라게 되었고 나 역시도 미래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시민'으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다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9번째 강의는 “그린스완 시대의 그린뉴딜, 금융의 역할”이 주제였고,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펀드매니저님이 강연을 맡아 주셨다! 에너지 분권과 마찬가지로 녹색 금융도 역시 나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 금융업계에서도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을 하고 계셨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기후 변화가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을 한번에 뒤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주주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탈 탄소 전환을 요구하고 주도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행동 패턴을 실천하는 것이 기후 금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후는 박애가 아니라 투자다” 라는 말이

1월 19일

★ 열번째, 열한번째 강연

열번째 강연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Energinet”의 Peter 강사님이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의 성공원인과 미래 과제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 우리나라에 비해 빨랐던 이유가 단지 여러가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서 인줄 알았는데 덴마크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석유, 석탄 등의 자원을 수입했지만 오일쇼크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전환으로의 빠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열한번째 강연은 독일의 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기업 Orsted의 Andrew Ho 강사님이 “EU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강연해 주셨다. 석유, 천연가스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 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반갑게 느껴졌고, 우리나라의 정유, 석유화학, 제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Orsted의 사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또한 강연에서 배운 공급 안보, 탈탄소화, 저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하는 Energy trilemma를 솔루션 주제를 선정할 때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치며...

준비해 주신 열한 개의 강연은 평소에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아주 알찬 내용이었다. 청년 프런티어에 지원할 때 까지만 해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나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열정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반성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보니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다. 하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각기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원들을 청년 프런티어라는 활동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는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할 때가 온 것 같다 벌써부터 많은 고난이 예상되지만 그 고난도 마지막엔 달콤하게 느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